

아무하고도 안 나눌 거야

스티브 스몰 글·그림 | 안지원 옮김



혼자인 걸 좋아하는 큰 토끼는 말해요.
나누는 건 내 몫이 줄어드는 거라고요.
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작은 토끼는 말해요.
나누는 건 새로운 것이 늘어나는 거라고요.
새로운 이웃이 된 큰 토끼와 작은 토끼는 어떤 이웃이 될까요?

내가 나누기 싫어하는 큰 토끼라면 순무밭 팻말에 뭐라고 썼을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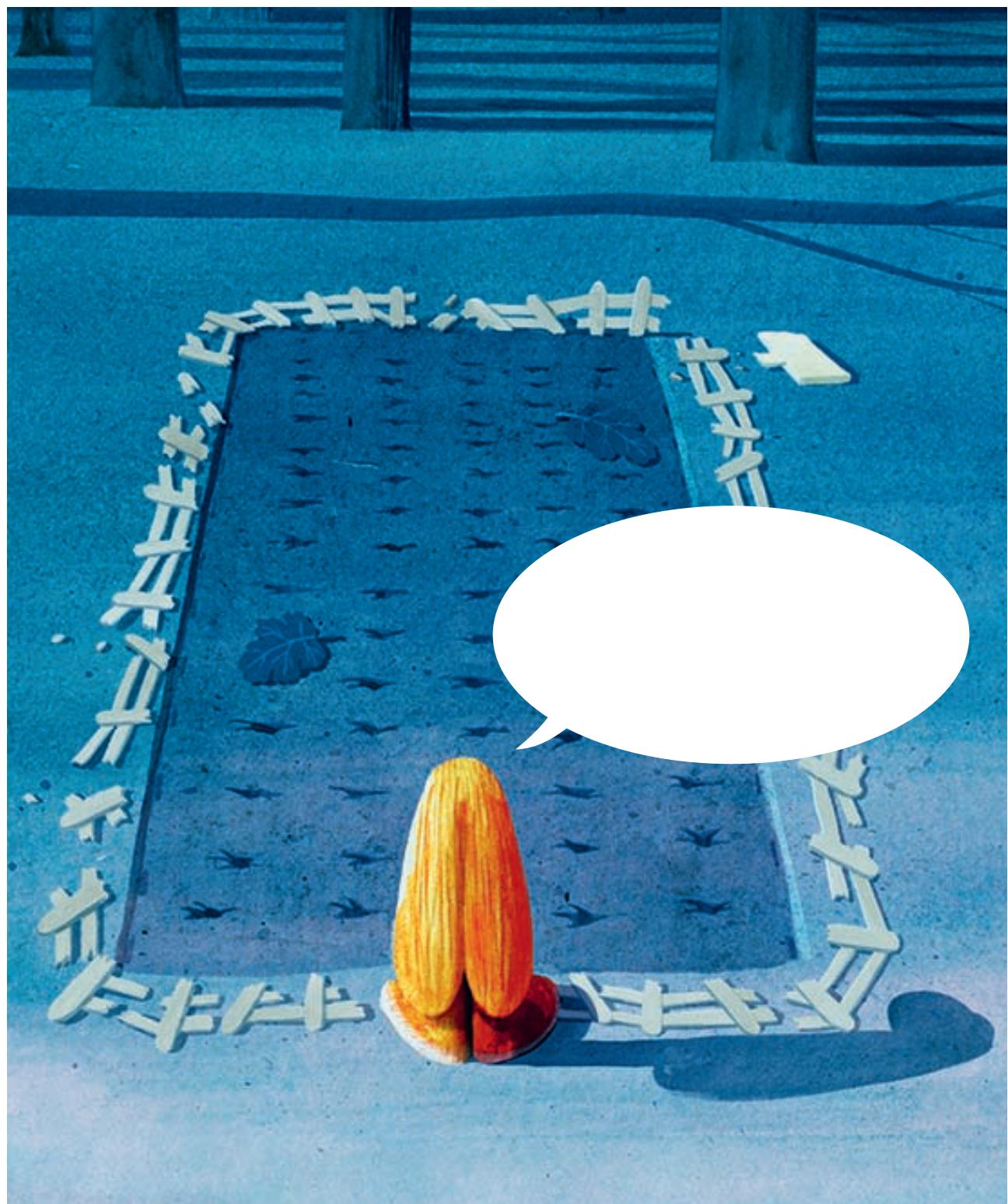
큰 토끼는 이사를 온 작은 토끼에게 순무 나눠 주기를
거절했어요. 작은 토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



산책길에 멧돼지를 맞닥뜨린 큰 토끼는 순무밭으로 달려가서
어떻게 했나요?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.



작은 토끼의 당근밭을 지키려고 큰 토끼는 순무밭을 내주었어요.
멧돼지가 다 먹은 순무밭을 보고 큰 토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



내 경험 이야기하기

- 나도 토끼들처럼 아끼는 것을 나누어 준 적이 있나요?

- 나누어 주고 나서 마음이 어땠나요?



- 큰 토끼와 작은 토끼처럼 나누고 난 뒤 다른 새로운 걸 알었나요?

- 새로운 걸 알었다면 무엇을 알었나요?

큰 토끼와 작은 토끼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덧 친구가 되었어요.
둘은 책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?

